

전통 목각탱의 세계 500 명의 문수보살과 500명의 문수동자가 한 도상 속에 어우러져 오대산 적멸보궁 중대 사자암(주지 인광)에 나뉜다. 10월 1일 오전 10시 점 안법회를 통해 장엄한 모습을 보이게 될 문수목각탱(文殊木刻幢)은 불화의 도상을 새긴 기존의 목각탱과는 달리 새롭게 구성된 창작 목각탱이다. 불모 허길량씨가 2년의 산고 끝에 새로운 양식의 목각탱을 탄생시켰다.

본존 비로자나불과 협시 문수 보현보살을 모신 법당의 3면을 천불이 채우는 형식이다. 국산 은행목으로 조성한 문수목각탱은 8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합하면 가로 27m, 세로 2m10cm 규모이다.

안경·마스크를 쓴 동자에서부터 오리를 울타타거나 책을 보는 등 다양한 즐거움의 세계가 하단부 동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상단부의 문수보살은 온화한 상호호비천상·사자상 등과 어우러져 불세계의 정염미를 두루 나타낸다.

후불탱화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나무로 조각한 목각탱은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됐다. 평면의 회화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열망하고 깨달음을 갈구했던 당시 불자들은 목조각으로 후불탱을 만들어 보는 이의 환희심을 자아내고 신심을 북돋웠다. 그러나 목조라는 한계는 화재로 인한 소실을 불려와 남아있는 전통 목각탱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전통 목각탱은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걸어 나올듯 정교하고 장중한 불보살님들...



보물 제421호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 서울 경국사 목각탱

서울 경국사에는 조선 후기 18세기 중엽에 조성된 목각탱이 모셔져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하나이다. 보물 제748호인 극락전 목각탱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모두 13구의 불상과 보살을 새겨넣고 있다.

주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여러 층의 높은 양련좌(仰蓮座, 연꽃이 위로 향한 모양을 새겨 꾸민 좌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 실념인을 위한 본존의 좌우에는 아미타 8대 보살을 배치했다. 그 밑에는 사천왕중 증장천과 지국천을 배치했다.

△ 예천 용문사 목각탱

보물 제989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불

좌상과 목각탱은 17세기 후반 숙종 10년(1684년)에 조성됐다. 목각탱 하단에 조성된 조각이 남아 있어 제작연도가 확실하다. 현존 목각후불탱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7세기 후반 조각양식을 알려주는 중요 자료다.

좌상각형의 기본구조 옆에 좌우로 구름 무늬 광선을 표현한 둥근 조각을 붙여 장식한 것이 독특함을 자랑한다.

본존불은 하품중생인의 아미타불임을 묘사하고 있다. 본존불을 둘러싼 사천왕 8대 보살 두 제자는 상중하 3열로 배치됐다. 상열과 중열에는 좌우 두 보살씩 8대 보살을 배치했다. 상열 보살 좌우에는 무릎 꿇고 합장한 2대 제자를 배치해 구도의미를 살린 것이 돋보인다. 하열에는 사천왕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탱, 보물 제989호 예천 용문사 목각탱, 보물 제922호 상주 남장사 목각탱.

△ 상주 남장사 목각탱

상주 남장사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보광전의 후불목각탱이 정염미를 보여준다. 보물 제922호로 지정된 이 목각탱은 길쭉한 나무판 8장을 연결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4단씩 3열로 10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을 계단식으로 배치한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보살과 제자, 사천왕 사이에는 연꽃과 꽃봉오리들이 장식하고 있고, 본존의 머리 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두 줄기로 솟아 오르는 양식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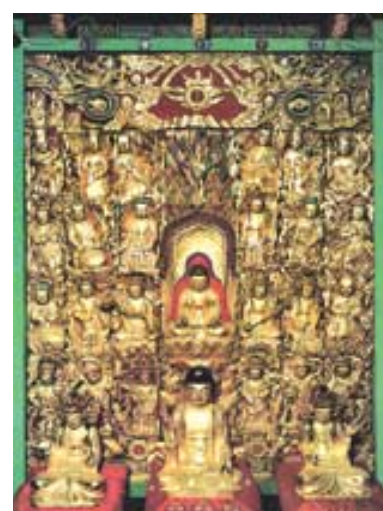
회화적이면서도 조각적인 매력이 뛰어나다.

△ 문경 대승사 목각탱

문경 대승사 목각탱은 원래 영주 부석사에서 봉안하고 있던 것을 대승사로 옮겨 놓은 작품이다. 대형이면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걸작품으로 유명하다.

대승사 목각탱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주 부석사와의 분쟁 문서들 때문이다.

보물 제575호로 지정돼 있는 '상주 대승사외사사승도등장' '상주사불산대승사승도등장' '도내상주사불산대승사제승도등장' 등의 분쟁 문서를 통해 반환을 원했던 원 소유주 영주 부석사와 문경 대승사의 소유 분쟁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있다. 두 사찰의 분쟁이 해소되고 합의한 내용을 적어두는 약속 문서인 '완의' 역시 보물로 지정된 문서. 분쟁은 고



문경 대승사 목각탱은 영주 부석사에서 옮겨 온 것이다.

종 13년(1876)에 목각탱을 문경 대승사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완결됐다.

△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현존 조선 후기 목각탱 가운데 가장 간략한 배치구도를 보이고 있는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은 현재 금산사 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물 제421호인 약수암 목각탱은 정조 6년(1782)에 제작됐다. 원만한 불상들의 모습과 배치구조, 정교한 세부조각 등으로 조선 후기 목각탱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자 당대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interview 오대산 사자암 '문수 목각탱' 조성 허길량 불모

“문수보살 전통 따르고 문수동자 자유롭게 표현”

“부처님을 조각하는 마음은 내 내면의 부처님을 끄집어내서 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스승 우일 스님께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불모 계보를 유일하게 잇고 있는 문도에서 저는 5대째 불모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는 이번 ‘문수 목각탱’ 불사가 또다른 ‘성장’의 계기입니다.”

15세부터 조각에 입문해 40여년 한 길을 걸어온 불모 허길량씨. 지난 2년 동안 오대산 중대 사자암에 봉안할 문수목각탱 작업을 최근 마쳤다.

“목조각이기 때문에 법당에 안치한 후 현재의 기온 습도 등으로 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칠을 하는 과정이 남았다”는 허길량씨는 “내 생애 이런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전통 후불목각탱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천불전을 목각탱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과 문수·보현보살 뒤에는 꽃비 내리는 사자쌍수를 부조로 조각해 배치할 예정이다. 천불을 대신하는 문수목각탱에 이어 현대적인 후불탱을 조성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부처님을 조각해왔지만 전통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허길량씨는 “상단의 문수보살은 전통의 부처님 상호를 그대로 따르고 하단의 문수동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표현하며 좀더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밝힌다. 그래서일까. 상단 문수보살이 불보살의 세계를 장엄스럽게 표현해내고 있다면 하단 문수동자는 천진난만한 동자와 오리 학 거북이 등 동물들과 연꽃 등이 자연스럽게 조각됐다.

부조 작업이 쉽지는 않다. “등쪽이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조각칼로는 등쪽 조각을 할 수가 없어서 조각칼을 휘어서 새로 만들어서 작업했다”는 설명이다.

1977년 한국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목각탱으로 대상을 받은 이래 여러 사찰에서 후불목각탱을 조성했다. 신중탱 칠성탱 등 그동안 작업해 온 후불탱 들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르로 지정된 그의 저력은 기본에 대한 충실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정성에 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허길량씨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수목각탱이 어떤 평가를 받든 시 두렵지만 100년 200년 후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시대적 작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그가 주먹으로 눈을 찔리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나다워, 너는 나의 가슴을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을 울리리라.’

-이철오백년의 회한 중에서-

전쟁의 막대한 도박으로... 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 원효는 그에게 어느 생사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살충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어찌 보면 실존을 자식 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파계승의 노래 중에서-

파란만장한 전쟁과 중흥의 삶을 지나 그렇게 야기되곤 태어난 것이다. 구원이 그 의식을 살펴보니 바라밀은 날 때부터 2선정(禪定)의 경지였다. 야기는 놀람에도 4개월 동안 울지 않았다.

-아기도인 바라밀 중에서-

권 오임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젠가 되었던 분이냐! 먼... 옛날부터, 난 이 불을 알았어...!” 그녀는 설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실할 수 있었다.

-수행의 비로 중에서-

스승이 다녀간 후에 치선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마음길을 담은 노트 중에서-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내가 보편이라고? 지은은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편이 너였어?” 정오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편의 가니던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소녀로 돌아온 옛 스승 중에서-

“연하는 술이로구나... 세도 와서 지지고 승냥이도 와서 씹어가고... 사람도 와서 열매를 따는구나. 천 가지 별레소리가 아늑도 하구나... 그렇게 더불어 곱어안고 가는 품이... 나의 품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로구나.”

-마음빛장을 열리라 중에서-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전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고, 무색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호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낌없이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를 깨우려 할 것이다.

-금강삼매경의 인연 중에서-

그것은 구선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로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어찌했 인간세계에 봉인 된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태백산용선과 옥수련법 중에서-

그 순간에는 머스도 사람도 시령도 도로도... 천지도 아무렇지 않을 뿐...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드는 것은 없었다.

-어둠의 끝을 본 눈 중에서-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 아들이 시우의 전신... 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 맞기 어려움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 당신 때문에 죽게 된거야...!’ 라고

-지옥에서 만난 인연 중에서-

